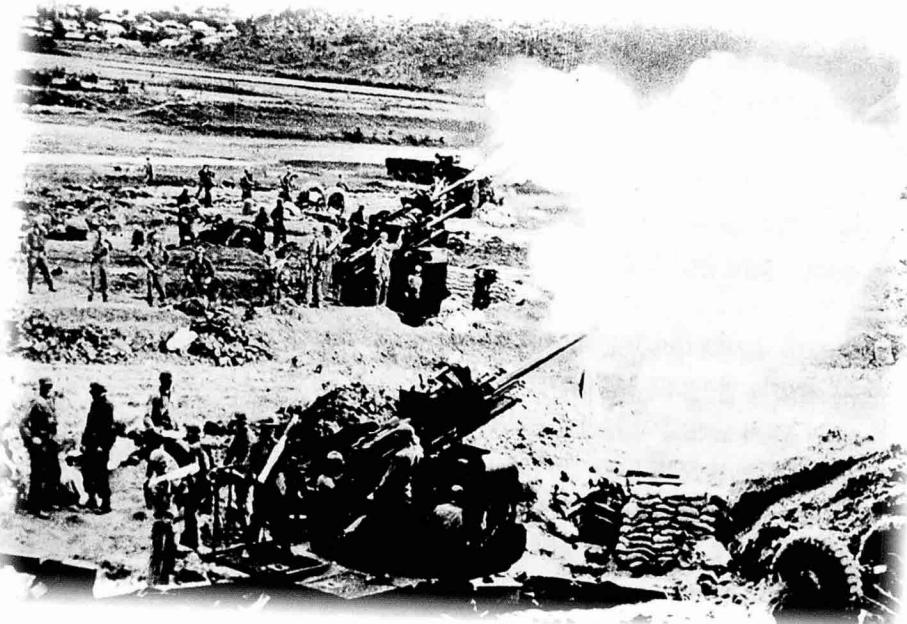


## 6·25 전쟁의 실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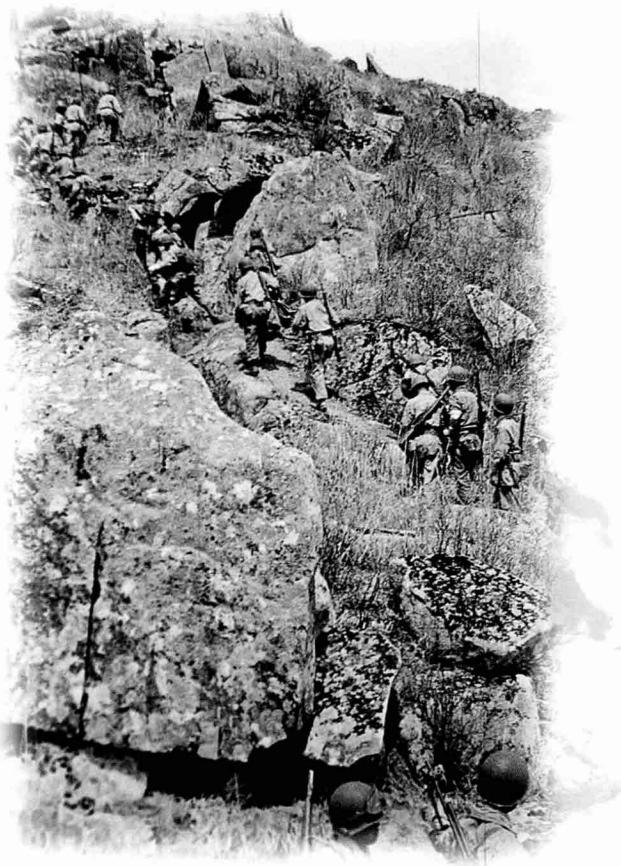
북한은 1950년 6월 25일 04:00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3년여간 골육상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강요해 우리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다.

# 전쟁을 넘어 평화로~ 물단을 넘어 통일로~



3년간의 전쟁에서 전방과 후방,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은 없었다.

북한군은 의용군이란 미명하에 40만명을 강제 징집해 훈련도 없이 전선에 투입하여 대부분을 총알받아 희생시켰으며, 개인의 재산 및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전국민의 생활 터전과 사회·경제 체제가 황폐화 되었다.



# 6·25 특집화보



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녀자와 아이들이었다.

북한의 남침은 평화롭던 삼천리 강토를 삼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몰아 넣었으며 민족 근대사의 발전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비극을 초래하였다.

6·25전쟁은 한민족과 이 강토에 전대미문의 참화를 남겼고, 인명과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으며, 아직도 침죽한 정신적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.



6·25전쟁 이후 5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.

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무력적화 야욕을 직시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주국방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.

